

오늘부터 원주~새말 국도 확포장

356억 투입 2022년까지 2차로 개량

【원주】원주~새말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가 본격화한다. 국도교통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청장:전만경)은 21일부터 국도 42호선 원주~새말 11.66km 도로건설공사를 시작해 2022년 2월 완공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와 횡성

군 우천면 백달리를 잇는 국도 42호선 확포장 사업은 356억원을 들여 2차로 개량이 이뤄지며 (주)영신 등 3개 업체가 시공을 맡는다. 원주청은 국도 간선기능 및 교통안전성 확보,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설계에 착수

해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설계했다.

이 구간 도로 확포장이 이뤄지면 영동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구간의 주말 및 휴가철 지정체 대체우회도로로 활용되고 횡성 우천농공단지 주변 도로망이 개선돼 차량 이동 및 화물 수송이 편리해진다. 또 소초면 지역 선형

불량 구간 및 경사 고갯길의 도로 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지역 발전도 예상된다.

전만경 청장은 “원주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계해 혁신도시, 농업 등 동·동남부권역과 충주에서 원주시내를 거치지 않고 횡성 우천, 안흥 방향으로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배분 처리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내일 서부순환도로 공사 시공업체 선정

【원주】부실~민중 간 서부순환도로 공사 시공업체가 22일 선정된다. 원주시는 조달청에 의뢰해 진행 중인 서부순환도로 입찰이 이날 개찰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정 인근인

무실동과 호저면 만종리를 잇는 서부순환도로 공사는 모두 564억9,900만원이 투입돼 3.216km 구간을 폭 20~3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0.75km, 폭 16m의 터널이 주요 공점이다. 유학렬기자

동해시 3억원 이상 공사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동해】동해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3억원 이상 종합공사 발주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제한 적용을 받는 대

형공사 추진 시 분할(공구)발주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지역생산물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건설공사 우선 고용과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종합공사 3억원 이상 공사는 공동협약을 체결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되

도록 하고 있다. 공동협약은 공사업체 하도급 우선적 참여, 공사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지역업체 구입 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 등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또 자율적 설정 준수, 하도급 및 지역업체 대금 현금지급을 통한 체불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영창기자

원주~새말 도로공사 오늘 착공

346억 투입 2022년 완공

원주시와 횡성군의 숙원사업인 국도 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 공사가 첫삽을 뜬다.

원주국도관리청(청장 전만경)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국도 42호선 원주~새말 구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1일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원주국도청은 총 346억원을 투입,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총 연장 11.66km 구간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2차로 확장 및 선형 개량

등을 추진한다.

국도 42호선 원주~새말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구간의 주말 및 휴가철 지정체 발생시 대체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횡성 우천농공단지 주변 도로망의 개선 효과를 가져와 물류 기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소초면 지역의 선형불량 구간 및 높은 고갯길에 대한 구조가 개선되는 동시에 치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구룡사 진입로와의 연결로 치악산 방문객 및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원주/정태욱

◆ 명복을 빕니다

◆김남상(83세)씨 별세, 은래(화성건설 대표, 전 강원도사격연맹회장), 한(수원 나이트 공장장), 명희(양양 만나식당 대표), 은희(동해 씨씨미용실 대표), 명숙(시흥시 디아모르 팀장), 선희(서울 중남직물 대표)씨 부친상=20일 별세 △빈소 양양장

례문화원 △발인 22일 오전 8시30분 △연락처 010-5377-8773

◆허남기(60) 전 농식품연구소장 별세, 장지씨 남편상, 정은·준영씨 부친상, 전보람씨 시부상=20일 별세 △빈소 춘천호반장례식장(특) 5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춘천 신복읍 용산리 선영 △연락처 010-6403-6384

건설 2016 한·일 건설세미나... 23일 도쿄, 29일 서울서 개최

일본 건설산업을 읽고 한국건설 방향 모색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오는 23일과 29일 '2016 한·일 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건설업계 간 민간협력기구인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이다. 대한건설협회는 한·일 건설업계 간 민간건설협력기구인 한·일건설협력협의회를 지난 1977년 창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두 나라 건설업계는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오가며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건설세미나에서는 일본의 도시재생 전략 등을 다룬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세미나 모습.

제1 주제에서는 '일본 건설산업 업역체계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바야시 다카아키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 연구이사가 발표한다.

제2 주제에서는 '도쿄의 도시재생 미래전략'에 대해 이치카와 히로

오 메이지대 공공정책대학원 학과장이 발표한다. △도쿄 개발계획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도시정비 계획 △공항확장 사업 등 향후 개발프로젝트 소개가 이뤄진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특히 이번 세

미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환경을 가진 일본의 건설산업 체계 등에 대한 정보와 도쿄의 도시재생 등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본의 최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오는 23일 도쿄 일본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참가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협회 총무지원실(02-3485-8223)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준기자 newspia@